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33권 1호(2025): 5-41

http://dx.doi.org/10.17841/jocag.2025.33.1.5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강 성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의 불안정 애착 경험을 심층 탐색하여 안정 재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자는 애착이론과 기독교상담을 토대로 한 상담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안정 재애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Bowlby의 애착이론과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이다. 연구 주제는 참여자들의 불안정 애착 유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연구 과정을 통해 안정 재애착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참여자들에게 실시한 애착이론과 기독교상담은 내러티브 연구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가이다. 참여자들은 성인 애착 유형 검사(ECR-R)에서 모두 불안정 회피 애착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둘째, 애착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자의 기독교상담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안정 재애착 경험을 줄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안정 재애착을 경험함에 따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주제어: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 존 볼비, 애착이론, 기독교상담, 내러티브 연구

---

* 한양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이 연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성경의 박사학위논문(2024년 8월, 지도교수: 박은정)을 요약 · 재구성한 논문임

www.kci.go.kr

Ⅰ. 여는 글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은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인이다. 중국 조선족 대학은 1992년에 중국 조선족을 위해 설립된 한민족 대학이다. 중국 인구의 92%는 한족이며 그 외 55개 소수 민족들이 8%를 차지한다. 조선족은 55개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체류 기간이 90일 초과하여 이동한 외국인 장기 이동 자료 결과에도 입국 초과국가로 보고된다. 중국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열이 높다. 이들은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하여 외화벌이로 자녀들과 떨어져 지냈다. 2000년대 조선족 학부모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괌, 사이판까지 가서 일하며 송금을 해주고 있었다. 연구자가 처음 중국 입국할 1998년도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대다수 조선족 부모들은 외국에 있었고, 또한 출국을 위하여 많은 돈을 비자 발급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08년 중국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경제적인 생활은 나아져 보였지만, 어릴 적부터 야기된 분리불안으로 인한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인간의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애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John Bowlby(2018)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상호작용의 대상인 엄마와 유아의 애착 유대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한다. 애착 유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에게 있어서 엄마는 사회적, 심리적 능력의 시작이며 유아와 엄마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애착을 이해할 수 없다. 유아보다 어린 영아는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거나 애착 대상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강하고 세찬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내적 작동모델은 유아와 엄마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에서 아동의 기대와 행동,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래 관계나 성인기의 연인관계와 같은 이후 인간관계의 초석이 된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엄마와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적 표상은 이후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내적 표상을 확신시켜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최이선, 2016). Bowlby는 전통적인 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의존성과는 달리 애착은 퇴행의 징후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는 영아의 울기, 빨기, 따라다니기, 매달리기와 같은 생후 1년간 애착 행동은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애착 행동은 통합되어 엄마에게 맞춰지며, 그 가운데 따라다니고 매달리는 행동이 울기나 빠는 것보다 애착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

www.kci.go.kr

(Bowlby, 2018). Bowlby는「분리불안」이라는 두 번째 논문에서 엄마에 대한 영아의 강한 애착이나 분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분리불안 이론은 프로이트가 아동의 거세불안으로 인한 위협적인 정서적 반응이라고 여겼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 상담적 내러티브 연구이다. 연구 과정으로는 대상자들의 불안정 애착 경험을 탐색하고 애착 유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기독교 상담적 내러티브 연구 과정을 통해 대인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되어 신앙이 성장 된다는 주제를 설정했다. 대상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안정애착을 이뤄야 할 시기에 국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정서적인 안정애착이 필요한 시기에 접촉 위안과 안정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 Rizzuto는 인간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부터 상처를 경험하여 안정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김희정, 2022). Rizzuto는 에릭슨 발달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간의 삶이 심리 사회적 위기를 거쳐서 점진적인 발달단계로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간 표상으로서의 신은 단계별 위기마다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12세 이후 단계 신 유형은 '개념적 사고와 다른 단계로부터 온 많은 표상들의 혼합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제시한다. 같은 시기의 신앙으로 이끄는 표상은 '당신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분이시다'로 제시한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재학 시기를 Rizzuto의 신 유형과 신앙으로 이끄는 표상에 대한 발달단계로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임희국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한다'고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신학을 주장한다(임희국, 2010). 연구 참여자 5명은 조선족 대학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 Roland Barthes는 내러티브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존재해 왔고, 인간은 내러티브의 세계를 떠나 살 수 없으므로, 인간을 내러티브적 존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이승은, 2011). Clandinin과 Connelly도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유기체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자신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서술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존재이다(염지숙, 2003).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연구의 연구 방법과 함께 애착이론과 기독교상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들이 기독교 상담학적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안정 재애착을 경험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 과정으로는 먼저 조선족 대학 졸업생들의

www.kci.go.kr

애착유형을 분류하고,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다.

Ⅱ. 펴는 글

1. 선행연구

1) 중국 조선족 대학에 관한 연구

중국 조선족 대학은 연구 참여자인 대상자들이 청년기 대학 생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 곳이다. 중국 조선족 대학이 있는 연변 지역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담고 있고, 민족 지도자들은 항일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연변에 무관학교를 열었으며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웠다. 연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출신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1992년 인가받은 중국 조선족 대학과 같은 재단에 속해 있으면서 북한 교육청이 설립을 인가해 준 북한 대학도 언급되어 있다(김진구, 2014). 중국 조선족 대학의 학생은 조선족이기에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 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는 조선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기능과 경제 상태, 용돈에 대한 만족, 건강 상태, 현재 부모와의 동거 유·무, 음주 유·무등의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다(박정환, 이진민, 김계화, 2017). 중국 조선족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조선족 초중, 고중 부모 애착의 매개 효과를 고찰하였는데 자녀들은 부 애착과 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았다(윤명숙, 조혜경, 박수영, 2012).

2) 기독교상담에 관한 연구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가진 영성과 종교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평가는 내담자가 가진 종교적 배경 및 가치관을 연구자가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내담자를 공감하여 더 섬세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개입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치료 절차에 활용 가능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최영민, 2001). 기독교상담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담자의 주 호소에 대해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강인숙, 2019). 내담자인 중국인

www.kci.go.kr

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적 성향과 문화가치의 상관관계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엄옥순, 2017). 또한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하나님 표상을 살펴보려면 개인이 초기 대상관계 경험에서 겪었던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 표상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과 상황의 기억들로 이루어지는 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형성되고, 어린 시절에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가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표상으로 형성된다(김희정, 2022).

3) 애착이론에 관한 연구

Bowlby의 애착이론을 적용한 개인의 일상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분리불안은 오히려 개인에게 진정한 영적 애착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각성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교회공동체가 일상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에게 안정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애도의 장을 '대면' 또는 '비대면'의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Bowlby가 주장하는 안정애착과 같은 경험을 개인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한다면, 갑작스러운 일상 상실로 인한 슬픔도 안전기지인 교회공동체 안에 쏟아놓고 함께 울고 웃는 건강한 애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슬픔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머무르며 애도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전환의 기회가 된다(박은정, 2020).

4)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기독 직장을 6년 이상 다닌 경험을 가진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러티브 연구는 직장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겪을 때 격려의 영향을 받은 성장 요인에 대한 전제를 두고 있다. 그 성장요인에 대한 구성 요소들은 경험적·영적·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이 연구의 위기 극복으로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사회적 격려로부터, 영적 격려로부터 온 내용에 관한 것들이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기독 직장인이 직장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직장 안에서는 어떠한 격려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의 내용과 격려를 통한 성장 경험은 기독 직장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 분석되는 연구이다(김경순, 2018). 김민철(2017)은 신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www.kci.go.kr

가지게 되는 삶에 대한 방식과 의미의 측면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탐색하면서 연구의 주제를 정한다. 그는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그리고 목회 신학적인 측면은 연구 참여자들이 전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삼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연구 방향을 정한다. 김경옥(2018)은 연구자로서의 자신은 이혼한 여성 한 부모로서의 객관화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담아내는 연구 과정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관계적 맥락 안에서 이혼한 여성 한 부모가 살아온 삶의 어려움을 내러티브하고 살아내며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다시 이야기하는 자전적 내러티브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내러티브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 애착이론

인간의 심리 건강에는 출생부터 성장기까지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 애착 유형은 한 번 형성되었다고 해서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안정애착을 구성하는 구체적 재료를 이해하면 애착 유형이 변화된다는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애착 안정성은 유아의 기질보다 주 양육자의 양육이 더 큰 변수가 된다. 불안정 애착은 단지 선천적인 불안 경향성이나 어려운 기질에 대한 유전적 소인에 기반하지 않는다. 잠재적으로 쉬운 아기가 비우호적인 돌봄을 받으면 비우호적으로 발달되며 잠재적으로 까다로운 아이가 민감한 돌봄을 받으면 우호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Allen, 2020). 생애 발달과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아동기를 지나쳐 간다. Jung은 말하기를 인간은 모두 과거로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로는 우리의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도 아이들의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돌보아야 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박종수, 2010). Freud는 리비도가 모이는 곳에 따라 발달단계를 나누어 인간의 심리학적인 관계들을 성적 생물학적 관계성에 주목하여 구분하였는데 심리 성적 발달 연령은 단계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5세 이전으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로 심리 성적 발달이 충족함을 경험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가지만 과다 충족이나 결핍될 때는 고착 상태가 된다(정옥분, 2020). Bowlby는 과학적 경험주의 방법론으로 프로이트 욕동 이론을 재구성하여 애

www.kci.go.kr

착이론으로 관계 이론의 독립적인 노선을 구축했다. Bowlby는 사람이 모성을 박탈당할 때 생기는 반응들이 그가 유아기때 어머니와 분리되었던 일의 영향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들의 반응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가 애착이론을 연구하는 계기가 된다(Bland, 2018). Bowlbly는 애착의 근본적 속성은 동기 체계로서 유아가 양육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절대적인 필요에 기초한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정서적 안정 증진뿐만 아니라 유아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본능으로 생존과 재생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애착 행동 체계다(Wallin, 2019). 정신분석학에서는 애착을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일차적 욕구가 아닌 이차적인 욕구로 본다. 하지만 Bowlby의 경우는 애착을 성욕, 식욕과 같은 일차적인 욕구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가진 욕구로서 애착을 이해하기 때문이다(김숙령, 2004). 애착이론은 특정한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특징인 정서유대(emotionalitie)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수정되며 상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연구한다. 애착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고 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서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나 고통 등의 강렬한 감정이 수반된다(Marrone, 2007).

Jon G. Allen(2020)은 애착 안정성의 핵심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관한 편안함에 있다고 한다. 안정애착 아동은 필요할 때 정서적 지지와 보호라는 안식처에 의존할 수 있으며 안전기지의 이익을 얻었을 때 독립적인 탐색과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은 의존과 자립성, 관계성, 자기 정의의 최적 균형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회피 애착 유아들은 낯선 상황 실험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괴로울 때 양육자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유아들의 효과적인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회피적 아동은 의존에 문제를 보인다. 회피 아동은 비효과적으로 독립적이다 보니 안정적인 아동보다 자동으로 다소 더 의존적이다. 회피적 아동은 그들의 감정적 분리와 적대감 때문에 고립되고 소외된다고 한다. 환경적 상황과 양육 방식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불안정한 적응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내내 계속되기 쉽다. 이 이론의 임상적 함의는 아동기 애착의 성인 상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할 수 있다(Allen, 2020). Allen(2019)은 이후에 진행된 성인애착 연구에서 두 방향, 즉 '성인의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와 '성인의 커플과의 관계'로 나눈다. 성인의 '아동기 부모

www.kci.go.kr

애착 평가'에서는 성인애착면접(AAI)을 사용한다. 유형은 안정-자율, 집착, 무시, 미해결-비조직으로 분류한다. 유형은 안정애착, 양가-불안애착, 회피애착, 두려움애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성인 애착 면접과 커플 애착 평가는 각각 안정-자율유형과 안정애착, 집착유형과 양가-불안애착, 무시유형과 회피애착, 미해결-비조직유형과 두려움애착이 대체로 평행한다. Mary Main(1885)은 성인애착평가 중 먼저 개발된 성인 애착 면접의 검사과정과 이 검사를 통해 분류된 애착유형을 살펴보면서 Main과 그의 동료들은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그들의 자녀들이 당하는 낯선 상황 절차에서 나타내는 유형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을 토대로 애착과 관련된 기억들을 조사함으로써 애착 체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반구조화 면접, 즉 성인 애착 면접을 개발했다. 인터뷰는 아픈 기억과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무의식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고안된다. 이를 통해 애착과 관련된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애착 안정성을 평가한다. 회피애착 유형의 성인은 자기감정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친밀함과 호감, 헌신 등의 관계적 용어와 거리가 멀다. 회피애착 유형의 성인은 자충족적(self-sufficient)이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loner)이다. 회피애착 유형의 성인은 돌봄이나 양육과도 반대 지점에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심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그 심정을 받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고통에 적개심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Allen, 2019).

2) 기독교상담

권수영(2007)은 '기독교적'인 형용사형에 주목한다. '기독교적'이라 함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단순한 수식이나 '기독교인의'이라는 소유격과는 다르기에 '기독'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기독교상담이라는 용어에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리스도를 닮은 구조와 성격으로 정의된다. 기독 상담자는 임상의 현장에서 정신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사례'를 접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상담의 연구 현장에서는 '목회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하나님이 상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권수영은 기독교상담의 의미 안에서 계시, 성육신,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징벌, 십자가, 회개 등을 기독교의 신학적 이해로 정의한다. 기독교상담은 이런 신학적 이해를 내담자의 자기 인식, 하나님 인식, 상담자의 공감, 죄책감과 수치심, 자아 정체성, 치료 또는 변화와 같은 임상적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외에도 인간 자체에 대한 네 가지 신념을

www.kci.go.kr

전제한다. 첫째는 인간을 치료하는 근본은 사랑이다(심수명, 2003).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귀하고 순전한 아가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Collins, 1998). 그럼에도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죄와 불순종으로 달려간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가 필요하다. 둘째는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손봉호, 1995). 사람은 근원적인 죄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 그것들에 눌려서 지낸다. 어릴 때부터 감성적 충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방해와 피해와 실망 따위로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Hurding, 2000). 셋째는 동일시이다. 모방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답습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넷째는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적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계별 발달의 과정을 잘 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상담에서는 개인적인 치유의 과정, 자신에 대한 건강한 평가, 그리고 정확하고 성경적인 자기 이해를 강조한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사람은 비록 타락함으로 죄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Jones, 2010).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평가하는 과정을 우선해야 한다. 상담 초기에 진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유형에 대한 분석은 그의 종교성과 영성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에 기초한 상담의 전략을 계획하게 함으로 효과적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지승희, 2001). 애착 초기에 확고한 안정애착을 획득한 사람도 양육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불안정애착 유형으로 전환되고 다시 최적의 양육 환경에 제공되면 안정애착으로 재전환될 수 있다. 새로운 애착 인물이 주는 지지와 후원은 그 안에 있는 자아 복원력을 활성화하여 그를 다시 안정애착 유형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Marrone, 2007).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불안정애착 관계를 형성한 개인일지라도 새로운 애착대상을 만나 다시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안정애착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불안정 애착이 안정애착 관계로 전환되면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기지 내의 안식처로 인식하게 된다(Beck, 2006). Mark R. McMinn은 책임 있는 기독교 상담자는 가져야 할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학과 신학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은 중재를 위한 많은 과학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다(McMinn,

www.kci.go.kr

2011). 권수영(2007)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슴까지 내려가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돕는 일만이 내담자가 오랜 세월 동안 묵혀서 가슴에 품어 왔던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세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3. 연구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내러티브'는 말과 글로 표현하는 인간의 모든 이야기다. 그것은 인간이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나아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삶의 패턴이다. 사람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해석하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양유성, 2009). 삶 자체가 그가 하는 이야기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양유성, 2004).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는 연구의 모델이자 방법론이 될 수 있다.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를 가리켜 인간이 만들어 내는 형태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이승은, 2011). Clandinin과 Connelly에게 있어서 '내러티브'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험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연구방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삶의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염지숙, 2003). 내러티브 연구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시학』)와 어거스틴(『참회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Clandinin과 Connelly는 그들의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Jean Dewey라고 말한다. Dewey(1934)는 '인간의 삶과 교육과 경험은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이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과 삶에 관한 연구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험'이란 평범한 용어를 연구 용어로 바꾸어 놓는다. 그에게 있어 경험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으로 연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타인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경험을 낳는다는 것이다.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가 개인의 경험을 표현하고 또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경험을 연구하며, 그 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연구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적인 생각은 경험이 가진 핵심적인 형식이자 그것을 묘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2011). 즉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이를 위

www.kci.go.kr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적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내러티브 연구자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의 결과로 최종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내러티브 연구는 결과물을 통해 독자가 연구된 경험 이야기 속에서 공명을 느끼고 이를 인해 자신의 삶의 행위와 타자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홍영숙, 2015). 내러티브를 방법론으로 사용할 때, 4개의 영역에서 전환이 발생한다. 첫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기존의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둘째, 자료로써 수를 활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초점을 가졌다면, 내러티브 방법론은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초점을 가진다. 그리고 넷째, 연구 참여자의 인식 방식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식 방식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는 기존의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줄 수 없었던바 '사람에 대한 이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확함보다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 즉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면서도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Clandinin, 2011). Donald E. Polinghorne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성, 계속성, 주제-소재의 계속성, 인과관계, 시계열, 장소, 플롯 등"에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이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시간 개념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방향적 움직임이지만, 내러티브 연구에서 시간 개념은 중층적이다. 그는 시간을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진술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로서의 현재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로서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로서의 현재다(Polkinghorne, 2009).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실제적 지식의 발현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이다(Clandinin, 1988). 또한 '살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살기'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Clandinin, 2011).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현상으로써의 내러티브 연구 관점이 현실에 실재한다. 여기서 Dewey의 경험 이론은 내러티브 연구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데,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도출해 내게 되는 연속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ewey의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준거는 Clandinin과 Connelly에 의해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이라는 내러티브적 경험 이해의 틀로 재탄생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가 주장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내러티브는 첫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이다. 둘째, 연구 방

www.kci.go.kr

법으로서 내러티브는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넷째, 그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다. 다섯째, 고쳐서 다시 말하기이다. 마지막으로는 깨달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이야기로 다시 구성해 가는 순환적 진보의 과정이다.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 연구의 기본 틀로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이라는 은유를 제시한다. 삼차원 공간 속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탐색' 이상의 의미, 즉 '재탐색'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문제를 정하고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다. 삼차원적 공간은 '여행'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각각의 차원이 가지는 방향 즉 안으로, 바깥으로, 뒤로, 앞으로를 나타낸다. 경험의 상호작용은 '안으로'와 '바깥으로' 방향과 관련되며, 경험의 계속성은 '뒤로'와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된다(김대현, 2006).

2) 내러티브 연구 사례 배경

(1) 중국 조선족 대학 소개

중국 조선족 대학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랑, 정의, 평화의 이념을 지향하는 대학으로써 국내외 단체 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역사 현장이다. 연구자는 이 대학에서 만났던 조선족 대학 대학생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변화되어간 이야기를 언젠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중국 조선족 대학은 선교한국에 속해있는 선교단체다.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전공을 배우고 생활하였던 졸업생들은 재학 중인 기간 안에 같은 동기나 선·후배, 교수를 통하여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해 들었던 기회가 있었던 학생들이다. 대학 캠퍼스 안에는 학생 기숙사가 있어서 모든 학생은 다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 '중국 조선족 대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사명을 다하려는 외방[1]교직원들이 있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과 특징

중국 조선족 대학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족 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외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학비와 가정 경제를 위하여 외국에서 일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자녀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러시아로 나갔고, B와 C의 경우에는 소학교 때 아버지가 한국으로 출국하였다. D의 경우는 5살 때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러시아로 출국하였다. E의 경우에는 초중때 부모가 모두 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나마 외국서 일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이고,

1) 대학 안에서 중국인 소속 교직원은 '중방', 외국인 소속 교직원을 '외방'이라고 한다.

www.kci.go.kr

부모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애착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 양육자와 떨어진 시간이 많았던 환경으로 인하여 정서적 유대관계가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런 연구 참여자들이 중국 조선족대학의 대학 생활을 회상할 때, 연구자나 부모님 같은 지도 교수와 교직원들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었던 영적 안전기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소개이다.

〈표1〉 연구 참여자 소개

구분	성별	나이 (세)	직업	학력	성인애착유형	결혼 여부	거주 국가	가족 순서	부모 생존
A	남	44	사업	대졸	불안정 회피	기혼	중국	독자	모
B	여	42	회사원	대졸	불안정 회피	미혼	중국	둘째	부
C	여	37	회사원	대졸	불안정 회피	미혼	중국	첫째	모
D	남	28	대학원생	대학원졸	불안정 회피	기혼	한국	독자	부모
E	여	42	연구원	대학원졸	불안정 회피	기혼	한국	셋째	부모

(3)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생활 내러티브

① 기숙사 생활

조선족 대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재학생들의 호구[2]는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로 옮겼다가 졸업이나 취업 이후에 호구를 다시 옮기게 된다. 신입생들이 입학식 이전에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때는 합숙 훈련 기숙사에서 함께 지낸다. 훈련이 지나면 신입생들은 4년 동안 지내게 될 기숙사로 재배정이 된다. 그 기숙사는 한 방에 선배가 졸업으로 퇴실하게 될 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신입생으로 채워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학교의 기숙사는 이런 상황에 따라 새로운 학기에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등에서 오는 외국 교환 학생들로 채워지기도 한다.

② 지도 교수 제도

지도 교수 제도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대학 생활과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 조선족 대학만이 갖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연구 참여자 A는 비가 오거나 고요해서 편안한 느낌이 들 때 중국 조선족 대학을 생각하면 학교 운동장에 혼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던 때가 떠오른다. 그런 A가 내러티브로 나누어 준 것은 지도 교

2) 한국에서의 호적의 의미로 서류 절차 과정

www.kci.go.kr

수 제도이다. A는 “중국 조선족 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때는 친구처럼 대해주시니까 어렵지 않고 편안해요”라는 내러티브를 하였다. A는 교수들이 격이 없게 대하여 준 부분들이 A를 편안하게 하였다고 한다. 다른 대학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조선족 대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A가 연구 기간 만남에서 다가올 홈커밍데이[3]에 참석할 계획을 들려줄 때 A의 목소리에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준 내러티브 속에는 함께 한 지도 교수들의 추억이 빠짐없이 드러난다. 참여자들의 추억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과 안정 재애착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내러티브가 담겨있다.

③ 대학 식당

조선족 대학은 중국 최초로 영양사가 영양 관리를 하는 단체급식 경영을 1994년부터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식당에 대한 추억들을 한 가지 이상의 내러티브로 내어 놓았다. 식당은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뿐만 아니라 저녁 11시가 넘으면 기숙사 불이 꺼진 후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장소가 되는 내러티브 공간이었다. 90년대 학번은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이니만큼 원하는 양만큼 먹고 맛과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조선족 대학 식당은 최상의 영양공급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식당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기숙사로 학생들을 초대하여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연구자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따스한 집밥이 생각난다며 좋아했다.

④ 군사 훈련

조선족 대학에는 중국 군사법에 의하여 9월 입학식이 있기 한 달 전에 합숙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입학이 허락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생활 내러티브를 할 때 군사 훈련의 에피소드 또한 공통 주제였다. 신입생들은 군사 훈련 입소 후 훈련을 마치게 될 즈음 자신의 학부 교수들과의 첫 인사를 구내식당에서 갖게 된다. 타 중국 대학과는 다른 형태로 대학 안에서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신입생들은 군사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친분을 쌓았다. 이 관계는 대학 생활 내내 같은 학번 안에서 혹은 지도 교수팀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⑤ 동아리 활동

연구 참여자 A는 재료 기계 자동화 동아리의 학습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 분

3) 2021년 중국 조선족대학 졸업생 홈커밍데이

www.kci.go.kr

위기는 A에게 자유, 상상의 날개 등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제일 애착이 간다고 한다. A는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분위기가 없었거든요.”라고 한다. 연구 참여자 B는 태권도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도 단련하고 가끔 타 학부의 친구들과 식사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슷한 맥락에서 봄이나 가을학기마다 학부 학생회가 주관하는 MT도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 떠오르는 내러티브라고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4학년 때 학부 연구회 동아리에 대한 인상이 크다. 그곳에서 선배와 후배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⑥ 영어 교과목

연구 참여자 A는 영어 회화 과목과 기초 영어 그리고 대학 영어가 좋았다고 한다. A는 영어 회화나 대학 영어 교수들이 다 좋았던 것 같다고 한다. A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론 공부를 위해 영어로 된 원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고중 때 일어를 배웠는데 영어의 기초부터 배워야 했던 대학 영어와 영어 회화 시간이 어려웠다고 한다. 졸업을 한 후에는 영어와 한어를 한글로 통역을 하면서 연구 이외 해외 출장으로 대외적인 업무까지 병행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에 자긍심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고중 때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다. C는 주업무 이외에도 퇴근 후에는 한어와 영어를 번역해 주는 일을 추가로 하고 있다. C는 학교 때 했던 통역 알바가 직장인이 된 후에도 겸직을 할 힘이 됐다고 한다.

⑦ 5월 축제

5월은 봄 학기 중간 시점이며 이때 학교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연구 참여자들을 만날 때 많은 비중이 되는 내러티브가 5월 축제의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 D는 신입생이 된 이후 가장 좋았던 첫 번째 기억이 축제 이야기다. D는 자신이 속한 학부가 신입생 단체로 참가하기 때문에 수업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서 축제 단상에 올라갔던 내러티브를 떠 올렸다. D는 축제에서 발표할 안무를 통하여 학부 친구들과 집중적인 시간을 갖으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을 때, 같은 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좀 되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때만큼은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생활한 것 같다고 한다.

⑧ 기독교 문화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과 외국인 대학 문화의 적응이 어려웠었고 익숙해지기까지 힘들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아보니 그것이 지금 자신들의 몸에 밴 중국

www.kci.go.kr

조선족 대학의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연구자에게 반문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외국인 교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기독교 문화도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지도 모른 채 받아들였다. 기독교 문화는 어느 순간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익숙한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D는 성탄절 전야에 기숙사로 산타 복장을 하고 오셔서 사진도 찍고 “메리 크리스마스!”하셨던 총장님의 인상이 컸다고 한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총장님이 오시니 그 다음 해가 기다려졌다고 한다. 그들은 기숙사 선배에게 전해 듣고 받아들인 복음을 자신도 후배에게 전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의 기독교 문화에 스며들어 온 것이다.

⑨ 장학금 제도

중국 조선족 대학에는 많은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대외적으로 후원을 해 주는 단체와 개인 덕분에 종류별 장학금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일정하게 지급되었다. 성적 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권으로 선정된다. 연구 참여자 B는 학교의 장학금 혜택이 자신을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게 해준 커다란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A는 스스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이후에 학교를 위한 후원을 하였다. 그것은 자신이 학교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내러티브다. 연구 참여자 E는 미국 집단[4]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인해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⑩ 21세기 비전 특강

중국 조선족 대학은 매주 금요일 오후 학교 대강당에서 중국 내외 외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21세기 비전 특강을 공개적으로 개설하였다. 재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21세기 비전 특강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멘토가 되어 줄 해외 유명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A는 비전 특강을 통해 외국에 유명한 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좋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강의실이 아닌 강당에 가면 듣는 강의가 달라서, 강의실에서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는 내러티브를 들려준다.

(4)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분석

4) 중국에서는 직장이나 회사를 집단 혹은 단위라고 명칭을 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대학에서는 보안상 교회에 대한 명칭도 집단의 이름으로 변경하여서 장학금 대상을 모집하였고, 이후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이 매번 지급되었다.

www.kci.go.kr

연구 참여자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프로젝트에 관여된 업무를 하고 있다. A는 내러티브 연구 중에 “나의 일 속에 수학에 대한 얘기가 있고 게임 개발을 통해서 보니까 수학은 내가 어렸을 때 이루고 싶었던 세계가 실현되고 있었네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네요”라고 들려준다. A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죠. 모든 쪽이 다 똑같지만 좀 더 익숙해지면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라고 일에 대한 편안함도 내러티브 한다. A는 이제 중국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사업에 정진하고 있다. A는 중국 조선족 대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중국 대기업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다. B는 4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싱글로서의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 B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졸업 이후 15년 동안 다 해 보았기에 이제는 해 보지 않았던 연애에 대한 기대감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성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씩 돌파해 보겠다는 각오로 변화되었다. B에게는 이제 이성 간의 업무나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회피가 아닌 직면으로 시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연구 참여자 C는 미혼으로 고령에 접어든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C는 자신의 주업인 회사 생활과 부업인 번역 일를 통해 배워왔던 역량들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C는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결혼을 위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1년 단기선교를 마칠 수 있었던 신실한 모습의 연장선에서 C는 다시 서 있다. 연구 참여자 D는 대학 시절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D는 임원 활동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잘 모르면서 임원 일을 시작하였지만 일하면서 즐겁고 유익했던 것으로 내러티브 한다. D는 부모님을 통해 눈 뜨게 된 경영일과 경제 분야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D는 학부 때 자신이 전공하였던 과정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경제학 분야의 석사 학위로 진학하게 된 것이다. D는 2023년 4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D가 내러티브 연구 초기에 35살이 되면 결혼하겠다던 계획을 미리 앞당겨준 반려자를 내러티브 연구를 마칠 무렵에 만났다. 연구 참여자 E는 중국 조선족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생활하고 있다. E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E는 사회인으로서 역할과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만이 살길이고 자녀를 올바른 믿음 생활로 인도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내러티브 한다. E는 오직 예수님 만

www.kci.go.kr

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길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다. E는 믿음 안에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4.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는 지면 사정상 연구 참여자 E만 서술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42세다. 한국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동문 선배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이다. 중국 조선족 대학 입학 당시에는 학교에 적응이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E는 논문 연구 과정 중에 우연히 연락되면서 만났고 내러티브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E는 자기보다 6살 큰 언니가 2살 막내인 자신을 업고 키웠다고 한다. E는 두 살 때 밥을 태웠던 기억(집안에 밥이 탄 냄새가 났다고 보고함)을 지니고 있다. E는 네, 다섯 살 즈음에 딸이 없는 고모의 원함으로 고모 집으로 가게 된 배경을 들려준다. E는 부모님이 더 나은 양육 환경에서 살라고 E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양이 보내지기도 하였던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이후 고모와 고모부가 헤어짐으로 인하여 7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어린 시절 기억인 것이다. E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학기를 학부에서 조교로 일하다가 한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오게 된다. 한국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자신에게 너무나 잘 해 주셨던 외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2012년 둘째 형부의 위암 말기 판정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연이어 생기면서 언니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힘들었던 대학원 생활을 하였다. E는 졸업 후 5~6년이 지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였다. 형부가 돌아가신 이후 E는 임신하였고 현재 다니는 연구소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직장을 옮길 무렵에는 시아버지의 간암 발병으로 집에서 간병을 받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E는 형부와 외삼촌이 모두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다. 외삼촌이 투병 중일 때는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에 있으면서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E는 그때 성령 체험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의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회 등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아직도 가족들은 믿지 않고 있는데 E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

www.kci.go.kr

기도를 하고 있다. E는 전공 학부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천하신 지도 교수님을 나눌 때 그 당시의 감정으로 돌아가 울컥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 대학 교수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 대학을 다닐 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 E는 교회만 다녔었던 남편을 인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Karlen L. Ruth(1999)는 유아기 이후의 아동이 안정성, 융통성, 애착에 대해 일관된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주는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로 양육자가 아이의 모든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어야 하고, 아이가 느끼고 원하고 믿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분석

(1) 불안정 회피애착: 피하고 싶어요.

①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ECR-R 성인 애착유형 검사 결과 불안정 회피애착 유형이다. E는 기억 속에서 아주 어렸을 때 상해를 엄마와 함께 갔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는 경험을 지니고 있다.[5] 그때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들려주었다.

> "너무 무서웠다. 낮잠 자라고 엄마가 나를 재워 주었는데 잠들었다가 초저녁에 깨웠는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고모한테 물어보니 엄마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오고 그때부터 생각은 다 나요. 고모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모부도 그렇고 사촌 오빠도 저를 예뻐했고 잘 적응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2022.7.2.)

> "제가 성격이 기복이 심하고 불안한 감도 적잖아 있거든요. 작은 신경질도 나고 짜증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마음은 '엄마는 왜 당하고만 있나'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5) D는 5살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정서와 심리에 빠진 경험을 갖고 있다. 엄마로부터 심리 정서적 지원을 양육 환경에서 받지 못하면 학대당한 것과 유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아에게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엄마와의 분리 경험은 유아에게 있어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시킨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가까이 지내기 어려워한다(Allen, 2020: 253-255).

www.kci.go.kr

엄마를 감싸고 그래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연약하고 그런 것이 싫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성격이 엄마랑 똑 닮았거든요” (2022. 7. 2.)

아래는 E가 내러티브 연구 안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불안이 연구 현장에서 유아가 관계했던 대상들에 대한 기억들로 자기 표상을 만들어 내고, 자신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례이다.[6]

E는 자신이 5살 때 죽음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다. E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아빠와 싸우고 난 이후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는 엄마를 발견한 것이었다. 자기 대상인 엄마가 죽음을 시도하려는 순간 E는 “엄마! 엄마! 뭐하는 거야? 그거 먹지 마!” 라고 얘기하였을 때, 엄마가 순간 놀라면서 E를 안고 울었던 내러티브를 꺼냈다.[7] 농사를 짓느라고 집 밖에만 나가 있었던 엄마는 E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의 자기 대상은 못 되었다. 엄마가 죽을 것 같았던 불안은 40살이 되어가는 E에게 지금도 가끔 우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죽을 것 같았던 엄마가 사라지지 않게 자신이 엄마를 불렀던 사건 그리고 부모의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적의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대상으로 있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떠오른다. 또한 딸이 없는 고모한테 입양 가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오지 않은 엄마와의 아픈 이별이 고모를 엄마로 그렇게 E는 고모의 가정에 동화되어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모의 이혼으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일들은 발달과정 가운데 무의식의 의식화 속에서 파편화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상처가 많아요. 마음은 진짜 착하고 예쁜데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무시당해요. 조선족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옛날 분이

6) 유아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관적 경험을 표상화 하고, 자신들의 표상은 환상을 통해서 정교화하게 된다. 유아는 모성적 대상과 만나 하나의 표상적 세계를 이룬다. 코헛은 이것을 ‘자기대상(the self object)'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표상적 경험을 가진 아이나 개인은 그의 대상과의 양자 단일치적 관계가 있어야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유아가 그 대상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없으면, 그는 심한 절망과 멸절 공포를 경험한다. 모든 생물학적 욕구들이 적절히 충족된다 해도,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 대상이 자기대상으로 있어야 하며 단지 욕구만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Rizzuto, 2000: 142).

7) George W. Stroup(1981: 95)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이란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기독교적 이야기는 개인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맞부딪히면서 나타나게 된다.

www.kci.go.kr

> 시니까. 상처 많이 받았죠. 지금은 두 분이 잘살고 좋은데,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일방적으로 많이 당했고 내가 성령님 만나고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성령 만나고 성령님이 저는 그냥 다 치유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2022. 7. 2.)

> 조선족 대학 3학년 2학기 때 교수 사모를 통하여서 영접 기도는 했는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은 안 하였던 것 같다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들려 준다. "사모님이나 교수님하고 영접은 했지만 제 안에 완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예요. 죄를 못 끊으니까 합리화 시켰던 것이겠지요? 교회는 다녔고 완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 날라리 뽕이었지요. 아직도 버러지 같은(웃음)"

> "옛날 얘기도 하고 감사하네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요. 따스하게 성령님이 우리 맘에 감싸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은 좋아요" (2022. 7. 2.)

E는 폐교가 된 중국 조선족 대학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최근 학교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자에게 질문한다.

> "얼마 전에 동기가 윗쳇에 중국 조선족 대학 사진을 올렸더라구요. 아들한테 아빠가 다니던 학교라고. 사진을 보니까 풀도 많이 자란 것 같고 지금은 사진이 없어서안 보이더라구요. 안타까움 서글픔 씁쓸함이 나는 드는데 중국 조선족 대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린 거죠?" (2022. 7. 29.)

연구자는 총장이 아직 Y시 학교 안에 계시니까 팔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듯이 중국 조선족 대학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충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였다.

www.kci.go.kr

"근데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모교가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내 딸한테도 그 얘기하기가 좀. 학교 얘기는 안 했어요. 학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이가 부모로 인하여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2022. 7.29.)

"중국 조선족 대학에서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지도 교수도 좋았고요. L교수님 때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L교수님은 진짜 생각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구나 하는 것 맞나요? 진짜 순수하시고 진짜 진짜 제자들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한동안 눈물을 흘린다. 연구자도 함께 눈물이 났다). L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문안 못 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L교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사명 다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교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데려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문안 갔었을 때도 제자들 다 챙기시고, 나오는데 사모님께 밥 챙겨주라고 그렇게 아프신데 말이지요(눈물). L교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녹아나는 것 같아요."(2022. 8. 6.)

E는 복음 전도가 금지된 중국 땅에서 대학 4학년 때 교수가 노방 전도를 시켰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한다. 전도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하고 나서는 좋았는데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택시를 타다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가냐고 하면서 전도를 하였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이다. 열매도 없었는데 뿌리기만 했단다. 한 학기 동안 전도한 E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마음이 연구자에게 든다. 연구자가 E의 순종에 박수를 친다. 입학 후 바로 믿음을 받아들인 E에 대해 응원하니 이어서 내러티브 한다.

"똑똑한 사람이 믿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내 친구는 똑똑한 사람이예요. 그런 것이 있네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www.kci.go.kr

저는 고난이 많았지요. 저는 항상 곤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충만하지 않을 때, 그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갑자기 우울해지고."(2022. 9. 17.)

E의 고백 속에 나의 고백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중국 조선족대학을, 한국에 Y대학원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S그룹 제약사를 그리고 지금의 교회까지의 인도하심을 감사의 은혜로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내게도 지나간 시간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다. 정년을 퇴직하고 오신 교수들, 30, 40대에 조선족 대학에 오신 교수들, 초창기 맨땅에 기초를 쌓기 시작하면서 오셨던 분들에게 오늘 E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모든 공동체 분들이 뿌린 열매가 여기저기서 다 열매 맺고 있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교수들과 함께 동역하였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소천하신 교수들과 이 땅에서 대학은 폐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전하고 싶었던 열정의 비전들을 주님께서 기억한다고 하시는 내러티브이다.(2022. 9. 17. 연구자의 연구일기)

"중국 조선족 대학 생각하면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교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지요. 그것이 빠지면 중국 조선족 대학은 그냥 껍데기 같아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관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 사 먹으면서 일상을 물어봐 주시고 제일 감사한 것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경공부를 하고 토요 대학부 찬양 예배를 갔는데 눈부시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막 울다가 나왔어요. 눈이 부시게 환한 것을 보면서 거룩한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맘도 너무 편안했고 불안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중간 중간 불안 우울증이 있어요. 상태가 안 좋

www.kci.go.kr

> 을 때가 되면 치고 또 들어오거든요. '진짜 뭐 있네' 그게 믿어지더라구요.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또다시 그런 경험은 없는데 한국 교회 와서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졸업 후 20년이 지난 다음, 조선족 대학 졸업 이후 교수님들께는 나누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나눴어요. 저는 옛날얘기 나누니까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감사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울과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요."(2022. 9. 23.)

>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경험을 모두가 다 한다. 그러나 열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첫 만남에서 주셨던 눈부시게 환한 그 순간의 경이로움은 깨달음의 세월 속에서 숙성되고 다시 발효되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E를 통해서 오늘 보았다. 조선족 대학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만남이다.(2022. 9. 23. 연구자의 연구일기)

연구 참여자 E는 내러티브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것을 보며, 반성할 것도 많았고, 회개하면서 많이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이건 아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거다. 자신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면서 E는 자신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E는 마지막 만남에 중국의 10월 날씨는 한국보다 더 쌀쌀하지만 학교 주변의 Y 시에서 처음 사과배 나무를 보았던 신기한 느낌을 기억하였다. E는 예뻤던 학교 캠퍼스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2) 안정 재애착: 이제는 부딪쳐 볼게요!

①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잊고 살았던 동네 친구들이 생각나서 그립고 동네 개구쟁이로 열심히 놀았었던 회상이 그려졌다. 부모님이 함께 있고 똑똑했던 큰 언니 밑에 있으면서 그 시절 놀았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어릴 적 부모님만큼 좋아하고 따랐던 외삼촌은 200호 남짓 사는 마을 현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며 살았다. E는 지금 한국에서 사는 부모와 작은 언니 그리고 외국에 떨어져

www.kci.go.kr

있는 큰 언니의 전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자 하는 E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게 되는 연구자의 마음이 있다.

> “저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이상한 문화를 봐서 이상한 교수님일 수 있었던 옛날이 지금 보면 충만하셔서 그랬던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은 영혼을 보신 거잖아요. 변화된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담하면서 잊고 살았던 것 보고 반성할 것 많았고 회개하면서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상처도 치유하고 이건 아니다 잘못 생각 한거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나 감정을 경험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2022. 7. 9.)

(3) 기독교 상담적 내러티브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참여하는 동안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 A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통해 대학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다짐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인식에 대한 깊이를 더했다. 연구 참여자 C는 믿음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았다. 연구 참여자 D는 성경공부를 함께 하였던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 깨달았던 지혜의 시간을 나눠주었다. E는 현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적 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 일기에서 함께 느꼈던 연구 참여자들의 기독교 상담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구원의 회심 내러티브

가.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타성에서 K성[8]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E는 K성 조선족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원래 갖고 있었다. 1학년 초기에는 중국 조선족 대학 문화와 대학교수를 통해 더욱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E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족 대학 문화를

8) 성은 행정구역상 한국의 두세 개의 도가 합쳐진 규모의 지역을 뜻하는 명칭이다.

www.kci.go.kr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교수와 사모와의 만남을 통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E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믿음의 싹이 심어지게 되었다. E는 중국 조선족 대학에 들어가는 길목에 진리, 평화, 사랑의 교훈이 적혀있는 푯대를 보면서 생활하였다. E는 유학 와서 들어간 대학원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적힌 것을 보았다고 한다. E는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표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심이 너무나 신기하다고 한다. 믿음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E를 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내러티브의 힘이며 역동이다.

> “중국 조선족 대학이 있어서 오늘날 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중국 조선족 대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맞으니까. 저는 진짜 축복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순종할 때 다 부어 주시는 것 같고, 요즘 애들 진짜 많이 똑똑해요. 제가 그 위치에 거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지요. 조선족 대학에 너무 감사해요.”(2022. 8. 6.)

② 자기인식 :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대학 시절에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연구 참여자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현재의 모습들을 내러티브로 직면하게 된다. 졸업 이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들은 과거형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나누면서 삶의 교훈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내면의 힘을 보게 된다.

가.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딸만 셋인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다. E는 어렸을 때 큰 언니의 손에서 주로 자랐고 둘째 언니도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였다. E는 5살 때 7개월간 고모 집의 양녀로 가게 된 기억이 없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E는 중국 조선족 대학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자신도 없다는 고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 “내가 4학년 때 언니가 초중에 들어가서 농사철에 가을 추수할 때는 참을 준비해서 가고 모내기할 때는 가서 돕고, 집에 밭도 있었다. 그래서 밭일도 하고 김도 매고 김은 그냥 많이 맸죠. 학교에서도 하

www.kci.go.kr

고 많이 맸죠. 겨울에 탈곡도 하고, 저희는 어장도 있어서 아빠가 어장을 했어요. 민물고기요. 어장에서는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웃음) 어장은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어장이 동네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학교 옆에 있었어요. 섬이라고 치기에는 작은 땅이 있었어요. 아빠가 작은 초가집을 지었는데 여름에는 거기서 지내고 배가 있어서 노를 저어서 그곳까지 가고 개도 있어서 개는 수영하고 거기까지 배 저어서 가고 하는. 여름철에는 민물에서 많이 놀았어요. 동네 애들 여름 지내는 놀이터였어요. 소학교 때 여름에는 거기서 놀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시골에 기억들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게 하네요. 엄마 아빠 싸운 것만 빼놓고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었어요." (2022. 8. 6.)

"오늘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가 막 펼쳐져요. 눈 속에서 뒹굴던 거요. 한국에 눈 온 이후에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저게 무슨 눈사람이야? 우리 때는 저거보다 더 큰 눈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더 추운 H성에서 눈이 온 이후에 막 눈사람 만들었던 것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상상이 안돼요.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제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가족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2022. 7. 16.)

"3학년 2학기 때 영접 기도는 했지만, 영접은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중국 조선족 대학이 없었더라면 저는 백 프로 중국 공산당이 되었을 것에요. 외삼촌 돌아가시고, 형부가 돌아가시려는 상황에서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제가 거듭나서 성령 체험을 받고 저는 힘든 상황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시아버지는 마작하면서도 기도하였던 모습이 있었어요(웃음). 저는 교회는 다녔고, 완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 날라리 뽕이었지요. 아직도 버리지 같은(웃음)." (2022. 7. 2.)

www.kci.go.kr

E는 이어서 수업시간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였던 교수님을 떠올렸다.

> “수업 시간에 기독교 이야기하셨던 교수님께 진짜 감사하지요. 그분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였으면 또 그러셨을까? 그것이 그 교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이제 그중에 누가 열매를 맺는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어느 교수님이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뿌린 씨앗이 있고 물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한 교수님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선 교수님이 열심히 뿌리시고, 뒤에 오시는 교수님이 보살폈으니까 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다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지요.” (2022. 7. 2.)

>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 맘에 감싸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를 찾아간다는 것이 또 다른 대상을 향한 장에서는 서로에게 에너지가 된다. 나눌 때 서로가 웃음으로 마무리 지으며 동의하게 되는 시간이다. (2022. 7. 2. 연구자의 연구일기)

③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깊은 믿음으로 전진하다.

Paul Tournier(2001)는 인간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해 엄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평안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 이후 5~6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같았던 외삼촌의 죽음과 형부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회복하였던 E의 내러티브가 떠오른다. 딸이어서 인정 못 받음인 줄 알고 35년을 연애도 안 하고, 열심히 애쓰며 살았던 B의 내러티브가 그 속에도 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로 만나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믿음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보게 된다.

가.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엄마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자신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해준다. 부모님 입장으로 본다면 E는 교회에 단단히 미쳤다고 여길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www.kci.go.kr

>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거예요. 엄청 착하고 대신 고집은 엄청 셌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교회에 미쳤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엄마나 아빠가 저희 때문에 자부심이 엄청 많아요. 든든하다고 하세요. 저 때문이 아니고 저희 신랑 때문에요(웃음). 남편 이야기가 자기 말로는 자기가 더 믿음이 좋았다고 자기가 먼저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방황을 오래 해서 그렇지라고 해요. 한국 와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구요. 저는 가서 졸아도 주일 성수는 빼지 않았던 것 같아요.”(2022. 7. 2.)

④ 대인관계: 사명으로 한 걸음 더

가.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다음 세대인 자식의 세대에 신앙으로 세우고 싶은 사명이 있다.

> “지난번 조선족 대학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나서 학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학부장님 혼자 남아 계셨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 얘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교수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진짜 부족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건 자기의 열매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울컥했어요. 아니라고 교수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어요. 그때 진짜 가슴 아팠어요. 학부장님도 그때 울컥했어요.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장님은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대학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조선족 대학 졸업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좌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낙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부장님이 조선족 대학에서 한 사명은 거기까지고 그동안 맺은 열매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이제 학부장님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백을 안 했고 그동안 그런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친구도 그렇고 다들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들도 믿음으로 들림 받지 않을까. 계시록에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팔고

www.kci.go.kr

> 전염병에, 기근에 자연재해가. 몇 대가 더 남았을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을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2022. 7. 29.)

> 모교가 없어진다는 소식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졸업한 대학이 자신이 졸업한 이후에 없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 E도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생각하는 E의 내러티브는 연구자의 마음에도 위로와 감사와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였다.(2022. 7. 29. 연구일기)

3)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가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들의 불안정 애착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출발하였고, 애착이론과 기독교상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 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주었다. Clandinin(2015)은 내러티브 연구란 한 인간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적 삶을 연구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인 동시에 삶의 정황 그 자체라고 한다. 참여자의 시각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와 함께 이루어 가는 삶의 내러티브가 된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경험적 세상에 기반을 둔 존재적 변화를 지향하는 내러티브 연구는 해석학적 연구자가 참여자들 경험의 연관과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조선족 대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쉬웠던 것을 다시 해 보고 싶어 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다. 대학 시절의 힘이 지금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을 탐구하면서 현재를 견뎌내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명철을 선물로 받은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결혼 생활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혹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의 삶 속에서도 애착의 불안정감을 아직 지니고는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연구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과 대학 시절을 떠올릴 때 연구자와 함께 하는 연구 현장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지금-여기에서의 안정 재애착의 경험을 얻었다. 연구 결과적 측면에서는 연구 전 성인 애착 유형(ECR-R) 검사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 모두 불안정 회피애착 유형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후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모델 점수와 타인모델 점수가 긍정적으로 강화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www.kci.go.kr

연구 전, 연구 후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내러티브 연구 분석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 재애착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Ⅲ. 닫는 글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의 불안정애착 경험을 심층 탐색하여 안정 재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석적 사례 연구이다. 연구자는 애착 이론과 기독교상담을 토대로 한 상담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안정 재애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상담학을 연구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전도할 수 없는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필요에 맞게 주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에 대한 연구도 함께 고찰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숙하게 전해주는 내러티브를 통하여 나오는 단어는 중국 문화가 아닌 기독교 문화다. 중국 조선족 대학이 세워진 자리는 이전에 Y시 북산가 공동묘지가 있었던 터였다. 그곳에 대학이 세워질 때 주변의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상징성을 갖고 탄생한 대학은 그런 배경도 모르는 채 입학을 하게 된 조선족 학생과 소수민족의 학생들로 채워진다. 재학생들의 피 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펼쳐 보냈던 대학 시절의 순간들은 이제 졸업 이후 5년 혹은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재학 중 기숙사 생활을 하며 중국 조선족대학 문화권 안에서 많은 추억을 함께 공유한 졸업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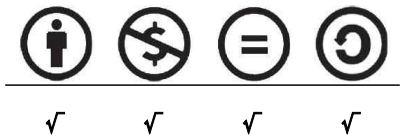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러티브 연구는 아들이 돌아본 대학 생활과 내러티브 연구 과정을 통하여 불안정 회피애착에서 안정 재애착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둘째, 사전 검사 결과에서 불안정 회피애착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이 내러티브 연구를 마친 후 자기모델과 타인모델 긍정 점수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내러티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내러티브 연구 안에서 기독교상담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다.

중국 조선족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러티브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인 조선족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www.kci.go.kr

알아가면서 애착 이론의 연구대상이 학문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의 시작점으로 제시해 본다. 둘째, 성인 애착 이론 연구를 통하여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불안정 애착유형 가운데 기독교 상담과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 안정 재애착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셋째, 내담자들에게는 기독교 상담자가 안정 재애착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주는 기독교 상담의 유익이 교회, 지역 사회, 학교를 통하여서 일어나길 기대한다. 넷째, 대학 청년기 시절에 함께 한 선교공동체의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는 성장은 공동체 안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금-여기의 시점으로 다시 쓰는 그들의 내러티브가 되었다. 다섯째, 받은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중국 조선족 대학의 기독교 정신은 대학이 설립되는 초기에서부터 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앞으로 중국 조선족 대학이 주님의 새로운 대학으로 다시 세워진다면 올바른 하나님 표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교적 대학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1월 31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3월 0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3월 14일



www.kci.go.kr

【참고문헌】

강인숙 (2019). 다문화 선교를 위한 공동체 돌봄에 관한 기독교상담 연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순 (2018). 기독직장인의 격려를 통한 성장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피어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옥 (2018).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삶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김민철 (2017). 신유를 경험한 기독 여성의 변화된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피어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숙령 (2004).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애착의 임상적 의미. **한국영유아 보육학, 37,** 171-194

김희정 (2022). 자기 수용을 통한 하나님 표상의 변화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고찰: 영성 지도 관점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수영 (2007). **기독(목회)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학지사.

박은정 (2020). 일상의 상실을 애도하기 위한 목회상담연구: 존 보울비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1,** 342-349. http://dx.doi.org/10.14387/jkspth.2020.71.341

박정환, 이진민, 김계화 (2017). 조선족 대학생들의 가족 기능과 자아존중감, 무력감 간의 관계연구. **동북아연구, 45,** 163-191. http://dx.doi.org/10.18013/jnar.2017.32.2.006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수명 (2003).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서울: 엔시디.

양유성 (2004). 이야기 치료의 상담원리와 방법론. **상담과 선교, 45,** 6-34.

양유성 (2009). **이야기 치료**. 서울: 학지사.

엄옥순 (2017). 성경적 상담의 선교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변과학기술대학 10년사 편찬위원회 (2005).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 10년사 편찬위원회.

염지숙 (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

www.kci.go.kr

연구, 6(1), 119-146.

윤명숙, 조혜경, 박수영(2012).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의 부모와 별거 기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애착의 매개 효과. **청소년 복지연구, 14**(1), 113-137.

이승은 (2011).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교육비평, 29,** 181-189.

임희국 (2010). 생명 위기 시대의 생명 신학: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룸하르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8**, 65-69.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15).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정옥분 (2010).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지승희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 및 변화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민 (2001). 기독상담에서 종교성과 영성의 평가.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 139-158.

최이선 (2016). 치료놀이를 경험한 아동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 5-21. http://dx.doi.org/10.25051/jner.2015.3.1.001

Allen, J. G. (2019). **애착 정신화하기 인간중심의 상담** (최희철 역, *Restoring mentalizing in attachment relationship*). 서울: 학지사. (원전 2012 출판).

Allen, J. G. (2020). **애착외상의 발달과 치료** (이문희, 김수임. 이수림 공역,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서울: 박영스토리. (원전 2013 출판).

Beck, R. (2006). God as a secure base: Attachment to God and the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2), 125-132. http://dx.doi.org/10.1177/009164710603400202

Bland, E. D., & Strawn, B. D. (2018). **기독교와 정신분석의 새로운 대화** (문희경 역, *Christianity & psychoanalysis: A new conversation*). 서울: 지혜와 사랑. (원전 2014 출판).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New York: Basic Book.

Bowlby, J. (2019). **애착** (김창대 역, *Attachment*). 서울: 연암서가. (원전 1982 출

www.kci.go.kr

판).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Totonto: Teachers College Press.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11). **내러티브 탐구**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Narrative inquir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04 출판).

Clandinin, D. J. (2011). **내러티브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염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 공역, *Handbook of narrative inquire: Mapping a methodolog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06 출판).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공역,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13 출판).

Clinebell, H. (1984).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and growth*. Nashville, TN: Abingdon.

Collins, G. R. (1998).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 역, *The Christian psychology of Paul Tournier*). 서울: IVP. (원전 1973 출판).

Dewey, J. (1934).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George, C., Kaplan, N., & Main, M. (1885).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Jones, I. F. (2010). **성경적 기독교 상담** (임윤희 역, *The counsel of heaven on earth*). 서울: 학지사. (원전 2006 출판).

Marrone, M. (2007).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이민희 역, *Attachment and interac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98 출판).

McMinn, M. R.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 상담학** (전요섭, 박성은 공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서울: CLC. (원전 2008 출판).

Polkinghorne, D. E.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 공역,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서울: 학지사. (원전 1988 출판).

Rizzuto, Ana-Maria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The birth of the living God*)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79 출판).

Tournier, P. (2001). **죄책감과 은혜의 상담학**. (추교석 역, *Guilt & grace*). 서울:

www.kci.go.kr

IVP. (원전 1962 출판).

Wallin, D. J. (2018).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Attachment in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2015 출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에서 2024년 8월 28일 인출.

통계청. https://kostat.go.kr에서 2024년 8월 28일 인출.

www.kci.go.kr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Graduates of Chinese Korean Ethnic University

Kang, Sung Kyung*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that explores the experiences of insecure attachment among graduates of a Korean-Chinese university in China through narrative research, aiming to facilitate their secure reattachment. The researcher provided counseling based on attachment theory and Christian counseling and examined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secure reattachmen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ncludes John Bowlby's attachment theory and Clandinin & Connelly's narrativ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questions are: How were the participants'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ormed? How did they experience secure reattachment through the narrative research process? What significance dose attachment theory-based Christian counseling hold in narrative study? All participants exhibited insecure-avoidant attachment in the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roported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insecure attachment experiences with their parents. Second,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attachment theory provided a positive model, allowing participants to experience secure reattachment. Third, a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ecure attachment through narrative research, they also showed spiritual transformation.

Key words: graduates of a Korean-Chinese University, John Bowly, attachment theory, Christian counseling, narrative inquiry

---

* Hanyang Women's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www.kci.go.kr